



지구촌 언어 출현의 거센 물결

세계공용의 언어는 가능한가

정과리 · 충남대 불문과 교수

세계 공용어의 문제는 가능성을 탐문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사실이다. 그것은 영어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세계 단일어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 세계 공통어의 출현에는 단지 강대국의 정복욕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다른 추동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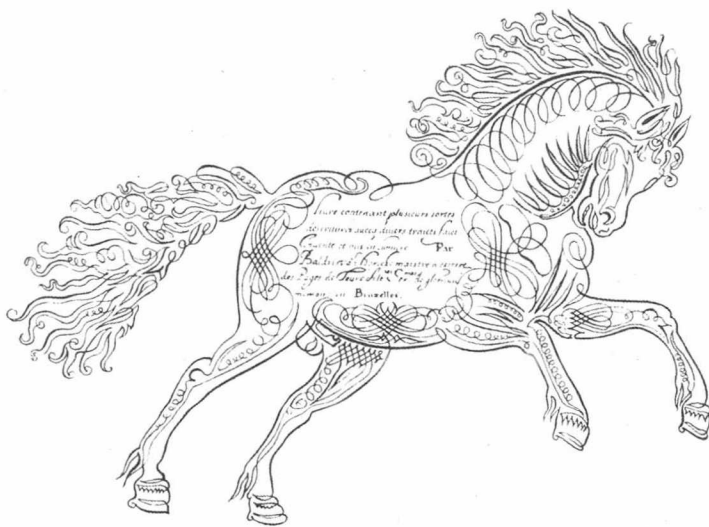
세계 단일 네트워크화로 동질화

한나는 정보화 사회와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국경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단일 네트워크 안에 통합되고,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그 단일 체제 하에서 점차로 동질화되고 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향은 돌이킬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역설적인 듯이 보이지만, 약소국의 욕망이 분명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소국의 정치·사업가, 그리고 지식인, 다시 말해 사회 지도층들이 세계 단일어를 향한 길에 자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경의 붕괴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사업가야 그렇다치고 정치가와 지식인도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인가?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보자.

격렬한 독립투쟁을 벌였고 오늘날 아프리카의 탈유럽화 운동의 선봉에서 있는 알제리의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알제리의 학교는 이중언어주의를 채택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적 이중언어주의, 즉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중언어주의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테크놀로지 분야에는 부족어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영어나 불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슬람은 나의 종교고, 아랍어는 나의 언어며, 알제리는 나의 조국이다"라는 알제리 국민의 나날의 복음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랍화의 모델로 여겨지는 이집트는 현명하게도 과학기술자와 의사들은 이미 영어로



자국어의 정체성은 세계어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야 가능할 것이다. <문자의 역사>(시공사) 중에서.

가르치고 있다." 한데, 실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아프리카의 소설가 알베르 멤미(Albert Memmi)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96년 9월호에서 아프리카의 작가가 처한 딜레마를 고통스럽게 진술했다. 유럽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금도 작가들은 구식민

분명한 사실은 이렇다. 세계 단일어의 출현은 현재 진행중인 불가역적 추세라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균립하고 있는 세계어를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인의 일상적이고 물질적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원에 한국어 내부에 새겨져 있는 한국문화의 독자적 전통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

럽 사용자에게 영어 습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팝 음악이 전세계의 청소년들을 점령하고, 코소보에서 나토가 미국의 하수인이 되었듯이 말이다. 자국어에 대해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뚜

국의 언어로 글을 쓴다. 독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알갭은 현상인가?

"한 해에 비교적 고급한 15개의 작품이 알제리의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 그런데, 그 전부가 파리에서 출판됐다. 알제리의 서점에는 거의 전시조차 되지 않았다." 검열·문맹·가난 등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유럽어는 자신의 작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따짐은 별개의 문제다. 문제는 단일어를 향한 움직임이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움직임에는 자본과 물리력의 힘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어서, 세계어의 후보에는 유럽어만이 포함되며, 실질적으로는 영어의 독재로 귀착할 확률이 가장 높다(유

봉' 범안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프랑스에서도 과학기술자를 필두로 말랑말랑한 억양의 영어를 할 줄 아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럽어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로 국한된다. 그것은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고 문자의 전통을 오래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들도 문화의 전 영역에서 미국 문화의 무차별 공습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유희도서 판정을 받은 <게르마늄의 밤>의 작가 하나무라 만케츠는 "일본인의 의식은 좋건 나쁜건 일본을 이미 미국의 한 주처럼 생각하고 있을 정도"라고 고백했고, 그 옆나라인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미국문화와 그리고 그 '한 주'인 일본문화에 완벽히 도취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젊은이와 문화만의 일인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건 미국을 모델로 하지 않는 게 없고,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지식인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70년대에 중산층 부인의 사교춤 바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는데, 최인훈의 <광장>을 읽어 보면, 그 춤바람의 앞자리에 해방 직후 상류층의 사교춤 바람이 있었고, 다시 그 앞자리에는 미8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한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적 정황을 직시해야만 한다. 자국어가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한국어가 과학적인 언어라서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져서도 아니다. 자국어가 한국인의 정체성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정체성은 그저 고집해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타자의 인정과 타자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압도적인 세계 단일화와 표준화의 탕크에 깔려 뭉개지고 말 것이다.

자국어와 세계어의 고급한 교류 기대

분명한 사실은 이렇다. 세계 단일어의 출현은 현재 진행중인 불가역적 추세라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균립하고 있는 세계어를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인의 일상적이고 물질적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자원에 한국어 내부에 새겨져 있는 한국문화의 독자적 전통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

학파성적은 형편없는데 단지 영어회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되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인가? 대학교가 영어학원으로 전락하는 게 바람직한가? 게다가 다른 지식은 제로인데 영어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자국어와 세계어의 고급한 교류는 연감생심 아니겠는가? ♦